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미륵과 화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륵사상이 삼한통일을 이루다

1. 미륵과 원화

불교사상사에 등장하는 미륵은 크게 셋으로 변별된다. 첫째는 붓다 당시의 수행자 미륵 청년이다. 둘째는 대승 아비달마인 유가행 유식학을 정초한 미륵 논사이다. 셋째는 인도 바라나국의 바라문 집에 태어나 석존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 도솔천에 올라가 있으면서 천인들을 교화하는 자씨(慈氏)보살이다. 여기서 다루는 미륵은 석존 입멸 후 56억 7천만년을 지나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華林園) 안의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써 석존의 교화에 빠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붓다이다. 그는 석존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에서 보처(補處)의 미륵이라고 하며, 비바시불-시기불-비사부불을 잇는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의 뒤를 잇는 현겁(賢劫) 천불의 제5불이다. 그가 주관하는 법회는 용화삼회(龍華三會)라고 한다.

이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에 머무르고 있다가 미래에 이 땅에 하생하여 성불한 뒤에 석가불이 제도하지 못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륵이 하생할 때는 이 땅(閻浮提)의 토지는 넓고 평탄하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온화하고 순수하여 말씨가 공손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여 다툴 송사(訟事)와 싸움(鬪爭)이 없으며,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재난이 없으며, 곡량(穀糧)이 풍성하여 집의 문을 닫지 않고 산다. 이때는 모든 것이 정화되어 지상의 가장 지극한 이상향으로서 아무런 고통이 없다. 오직 먹는 것과 편리(便利)보는 것과 늙는 것의 세 가지 병만이 있다.

미륵은 청년 · 논사 · 자씨보살로 분류
미륵이 땅에 하생하면 세상이 화목해져

요즘같이 먹는 것[食]과 누는 것[便]과 늙는 것[老]이 아니라, 밥의 쌀도 향기가 더할 수 없으며, 수고로움[勞苦]도 매우 적게 들여 식생활이 해결되며, 편리(便利) 때에는 땅이 갈라져서 마친 뒤에 다시 땅이 합해지고 거기서 연꽃이 솟아나 더러운 기운이 없어진다. 또 늙어서 죽음이 가까워 오면 스스로 걸어서 시신을 쌓아두는 숲속으로 가서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는 금은의 칠보가 길바닥에 버려져 흡사 돌과 사금파리처럼 밟혀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보배라 여겨 아끼고 욕심을 내어 서로 죽이고 싸웠다' 고 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웃는다고 한다.

진흥왕은 즉위 이후 법흥왕의 뜻을 이어 일심으로 붓다를 받들었다. 그는 불사를 널리 일으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승니(僧尼)가 되게 하였다. 왕은 나라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훌륭한 인물을 등용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낭자를 뽑아 원화(源花)로 삼았다. 그는 이들 원화를 중심으로 무리를 모아 그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가려서 등용하고자 하였다. 이것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크게 요긴한 일' 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뽑힌 남모랑(南毛娘)과 교(준)정랑[姣(俊)貞娘] 두 낭자 주위에 300여 명이 모였다. 그런데 어느 날 교정이 남모를 시샘하여 살해하였다. 이 일이 탄로가 나서 교정이 죽임을 당하자 이 원화제는 폐지되었다.

2. 풍월도의 설치

진흥왕은 교육으로 나라를 흥성시키려면 청소년 수양단체인 풍월도(風月道)를 반드시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왕명을 내려 양가(良家)의 자제 중에 덕행이 있고 준수한 자를 가려 뽑아서 화랑으로 삼게 하고 처음으로 설원랑(薛原郎)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이 풍월도의 공능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진흥왕 37년조에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는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구절과,「열전」'김흠운(金歆運)전' 에도 김대문이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겼다' 고 한 말이 바로 이를 가리킨 것이다. '3대의 화랑이 무려 2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꽃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사적은 전기(傳記)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는 대목이 있다' 는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풍월도는 국선과 화랑 및 낭도(승려낭도과 일반낭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젊은 화랑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승려낭도로는 진흥왕과 진지왕대의 진자(眞慈), 진평왕대의 혜숙(惠宿), 진덕왕 때의 전밀(轉密), 효소왕 때의 안상(安常), 경덕왕 때의 월명(月明), 헌안왕 때의 범교(範教) 등이 있었다. 진흥왕의 왕자이름인 동륜(銅輪)과 금륜(金輪; 舍輪)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풍월도는 진흥왕의 미륵신앙과 전륜성왕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화랑의 단체를 용화향도(龍華香徒) 또는 미륵신도(彌勒信徒)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14~15세에서 17~18세의 소년들로 이루어진 화랑(花郎)과 그 우두머리인 국선(國仙)에게는 각기 200~3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다. 또 이들 중에는 장년의 승려낭도 1인이 참여하여 국선을 보살폈다.

국선은 화랑 중의 최고의 상수(上手)화랑이었다. 현재 국왕이 받드는 국가적인 현재 이름을 알 수 있는 화랑들의 숫자는 약 30여 안팎이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는 화랑의 기원, 역대 화랑의 지도자인 풍월주(風月主) 32명의 계보 및 행적 등과 향가(鄕歌)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들 화랑이 거느리는 무리들[徒]은 나라의 위급할 때에 현장에 투입시키면 일개 사단 병력에 육박하게 된다. 이것은 관창 등이 계백의 오천 결사대와 벌인 황산벌 전투에서 증명해 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라에서는 미륵을 상징하여 화랑이라 하고 그 최고 우두머리를 국선이라 했다는 지점이다. 미륵불을 상징하는 국선은 신라의 미래부처 혹은 나라의 미륵부처로 받들렸다. '화랑' 이 곱게 단장하거나 장식했던 것 역시 이 미륵사상 사상에 연유한 것이다.

풍월도 안에는 화랑과 국선과 낭도가 있었고, 한 화랑 밑에는 무리가 있었다. 때문에 화랑의 무리들은 '근랑지도' (近郎之徒), '호세랑도' (好世郎徒), '삼화지도' (三花之徒), '유화랑 문도지문' (遊花郎文努之門) 등과 같이 '누구의 무리', '누구의 문도' 라고 불렀다. 경덕왕 때에 일식(日蝕, 日怪)의 기양(祈禳)을 위한 산화공덕의 개단작법(開壇作法)에 연승(緣僧)으로 초청된 월명(月明)이 왕에게 자신을 '국선의 무리' 라고 아뢰었다. 그렇다면 한 화랑이 낭도를 거느리듯 그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을 따르는 낭도' 임에 틀림없다. 반면 김유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특별히 용화향도라고 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 에 의하면 "공의 나이 15세에 화랑이 되니 당시 사람들이 흔연히 따랐으며 (그를 따르는 이들을) 용화향도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김유신을 따르는 무리만을 유독 용화향도라고 했을까?

신라의 국왕은 국선을 현실적인 미륵으로 받들었다. 사진은 경남 합천군 치인리에 소재한 보물 제222호 마애불입상

풍월도 진흥왕의 미륵신앙 영향 받아
화랑은 용화향도 · 미륵신도로 불려

3. 용화향도

용화향도는 '용화' 와 '향도' 를 합친 말이다. 용화는 미륵을 가리킨다. 〈미륵하생경〉과 〈미륵래시경〉에 의하면 용화는 뿜나가(Pumnaga, 奔那伽) 나무에서 유래되었다. 이 나무의 가지는 마치 보배 용[寶龍]이 백 가지의 보배 꽃을 토해내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솔천에서 인간세에 하생하여 성장한 미륵이 출가하여 이 나무 밑에 앉아서 성불하게 되며, 이 나무 아래에서 설법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므로 용화보리수(龍華菩提樹)라고 부른다고 한다. 때문에 미륵불의 설법대회를 용화회상이라고 하며 미륵불이 출현하는 미래의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한다. 해서 '용화' 는 미륵불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향도는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절을 하는 무리[禮佛香火之徒; 禮香之道]를 가리킨다. 〈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촉멸신' 조와 '포산이성' 조에는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무리' [禮佛之香徒]인 향도의 용례가 보인다. 이것은 미륵불에게 향을 사르고 예를 드리며 믿고 따르는 무리를 가리킨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풍월도를 이끌어 가는 최고 우두머리인 국선은 미륵불의 상징이다. 때문에 신라의 국왕 역시 국선을 신라의 현실적인 미륵불로 받들었다. 그리고 국선을 받드는 화랑과 그 무리들은 자연히 미륵신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유신(金庾信, 595~673)을 따르는 무리들만 용화향도라고 부른 까닭은 그가 미륵신앙을 강조하였거나 아니면 분명 어떠한 계기가 있어 그리했을 것이다.

진평왕 건복 28년(611) 신미년에 17세였던 김유신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 및 말갈이 신라를 침범하는 것을 보고 구적(寇賊)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품고 중악(中嶽, 斷石山; 月生山)의 석굴(石崛) 들어갔다. 그는 그것에서 목욕재계하고 하늘을 향해 기원하며 맹세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맹수처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한낱 어린 몸으로 아무 힘이 없사오나 나라의 화란(禍亂)을 맑히고자 뜻하오니 하늘께오서는 살피시어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하였다. 나흘째 되던 날에 갈의(褐衣)를 입은 한 노인이 곁으로 다가와 말하기를 "이곳은 독충과 맹수가 많아서 매우 무서운 곳인데 귀한 소년이 홀로 와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유신이 "어르신께서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라고 물었다. 노인은 "나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인연에 따라 오갈 뿐이며 이름은 난승(難勝)이라 한다"고 하였다.

풍월도 이끄는 국선은 미륵불을 상징
김유신은 18세 국선에 올라

자신의 뜻을 거듭 밝힌 그는 이웃나라의 침범을 물리치기 위해 비방(秘方)의 술법(術法)을 가르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곱 번을 계속해서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그대는 나이가 어리면서도 삼국을 통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어찌 장하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는 비법을 전해주었다. 그 때 노인은 "(이 술법을) 신중히 해서 함부로 망녕되이 전하지 말라. 만일 의롭지 못하게 쓰게 되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는 미륵의 사자(使者)인 도솔천왕 난승이었다.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조는 김유신이 33천(天)의 한 아들로서 신라에 강생했다고 적고 있다. 33천은 욕계 제2천인 도리천(忉利天)이며 이 하늘의 주재자는 제석천(帝釋天)이다, 제석은 여러 하늘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護法), 권선(勸善), 호세(護世, 國土)의 천신이다. 난승으로부터 비법을 전해 받은 김유신은 다음해인 18세에 이르러 국선이 되어 용화향도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미륵불에 대한 신행의 힘으로 삼한일통을 이루어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단법인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종 도 모 집

(법인 설립허가 제 2010-17호)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법우들의 모임인
금강회에서는 석가존자 전법 77대 법손인
운허당 연화대종사님을 종정스님으로 모시고
총무원장 보월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 탁마 할 뜻 있는
스님들의 입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종스님들은 불교전통의식 및
영남 범패의식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입종 바랍니다. (입종비는 없습니다)

◆ 총무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구운사(九雲寺)
전화 054)231-3101 / FAX 054)242-9301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금강회
회 장 혜 인 합장 010-3329-5478
총 무 정 인 합장 010-9455-9060

안양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명리학 초,중고급과정 육임 실전과정반

오천년의 문화유산 동양역학을 습득하여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사주명리학 초,중고급 과정 및
신규 육임실전반을 개설하였습니다.

< 모 집 안 내 >

명리학 초 급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명리학 중고급 과정 15명 학기당 30만원
육임학 실전반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문의처 031)441-1090
www.ianyang.ac.kr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22-1 (평생 교육원)
명리담당자 h 010-9804-8801(이종인)
명리담당자 h 011-791-8222(윤석정)
육임담당자 h 010-4471-6410(공 념)

기치유란?

기치유사의 치유 에너지를 환자에게 넣어주어
병을 치유하는 기법이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 :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하지만 몸이 아프다. **2. 상기증 :** 얼굴이 벌개지고 기가 위로 뜬다. 불면, 숨을 쉬기 힘들다. 답답하다. **3. 산후풍 :** 무릎 어깨 허리 골반이 시림. 땀과다. 무기력, 춥고 시리다. **4. 구안와사 :** 어느날 갑자기 물을 먹는데 물이 샌다? 얼굴 한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5. 척추 측만과 디스크 : 척추가 틀어졌다. 허리가 아프다.
6. 직업특성상 사기, 탁기가 몸에 들어와서 몸이 항상 피로하고 무겁다.

그외 일반적인 증상들은 더 빠른 회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회에서는**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통 기치유만을 전수** 시키고 있습니다.

기치유 수련은 이런 병증들을 치유할 수 있는
* **능력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수련입니다.
* **당신도 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치유 **능력**이 있다면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60기 기치유 양성반 개강!

개강일자 2012년 3월 27일(화) 오후 7 : 00 ~ 9 : 20
기간/장소 8주 과정(주1회)/서울 교대역 기치유 수련원
수련지도 윤한홍 저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진실과 거짓
전)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문 의 교대역 4번 출구(서초동 단우빌딩 3층 윤기치유명상수련원)
기치유센터 서울 교대(본원) : 02-3482-5032, 5065
대구 : 053-652-2202 / 구미 : 010-3233-4994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홈페이지: gihealing.com
다음카페: cafe.daum.net/Gichiu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
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